

관리자(보직교수, 지도교수, 조교 등)를 위한  
**대학 성폭력 사건 상담 매뉴얼**

- 서울대학교 공동체 내에서의 사건 상담 참고 자료 -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SNU HUMAN RIGHTS CENTER

## CONTENTS

1. 사건에 대한 소문을 알게 되었을 때
2. 상담 요청이 들어오면
3. 첫 상담에서 할 일
4. 2차 피해
5. 사건 해결 절차 안내
6. 피해자의 요구 확인
7. 피해자 보호 조치
8.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안내

### 1) 피해자가 누구인지 모를 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사건 상담 안내 메일을 보낸다. 내용에는 모든 상담내용과 개인신상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설명, 공동체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 사건해결절차에 대한 안내,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과 공간분리 방법에 대한 안내, 피해자 심리상담 안내, 사건에 대하여 면접상담 권유 내용을 포함한다.

### 2) 피해자가 자신을 밝혔을 때

상담자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건 상담 안내 메일을 보내어 상담을 받고 사건을 해결하도록 격려한다.

### 3) 제3자를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을 때

피해자가 상담자(관리자)가 자신이 사건의 피해자임을 알기를 원하지 않거나, 상담자(관리자)가 알 때 불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려 준 제3자와 의논해 보고 피해자가 관리자가 아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상담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고 위와 같은 사건 상담 안내 내용을 제3자가 피해자에게 알려 주도록 한다.

### 4) 언론, 인터넷 등을 통해 사건을 알게 되었을 때

피해자가 누구인지 모를 경우 1)의 예에 따라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아는 경우 2)와 3)의 예에 따라 안내하는 것이 좋다. 다만 언론이나 인터넷에 사건이 먼저 알려진 경우 제3자로부터 재생산되는 언행과 피해자 신상 공개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 지원 안내와 함께 공동체 전체에 대한 2차 피해에 대해 주의를 주고 교육한다. 또한 피해자를 찾아내 사건을 급히 해결하려고 하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

## 2 상담 요청이 들어오면

---

상담 약속을 잡을 때 내담자에게 비밀유지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면담장소 등을 정할 때 원하는 장소를 물어보고 안전한 장소로 정한다. 이때 상담 사실 자체가 비밀 유지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공동체 사람들  
들과 마주치지 않을 수 있는 장소를 정해서 상담을 한다.

## 3 첫 상담에서 할 일

---

피해자가 힘들었음에 대해 공감하고 용기 내어 상담 요청한 것을 격려하고,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건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함을 설명한다.

현재 피해자의 상태(건강, 일상, 학업, 업무 등)나 가해자와의 공간분리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해 공동체에서 도움 받기 원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정리한다.

사건 해결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피해자가 심리적인 상처와 후유증만 해결을 원하면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학내 상담기관(대학생활문화원, 단과대 내 상담실 등)을 안내한다.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힘들어 보이면 빠른 시일 내에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받도록 권하고 내담자가 동의하면 직접 학내 상담기관에 연락하여 약속을 잡아 주거나 상담소에 함께 동행해 준다.

첫 상담에서 상담자가 해결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 주기 어렵다면, 상담자가 학내 전문기관인 인권센터와 의논 후 다시 면담하자고 하고 다음 약속을 정하고 상담을 마친다.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2차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

내담자가 성폭력 해당 여부를 묻고 이에 대한 해결방법(학내절차, 형사, 민사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면 인권센터 상담을 권한다.

첫 상담부터 상담자는 모든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아래 2차 피해 관련 내용을 숙지한다.

#### • 2차 피해

사건으로 인한 피해와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주변인이나 가해자가 말이나 소문 등으로 피해를 주는 것이 2차 피해이다.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기본적인 안전감과 신뢰가 무너진 상태이므로 주변인의 사소한 말과 행동에도 상처받기 쉽고, 2차 피해로 인해 피해자는 더욱 큰 고통을 받게 된다. 사건으로 인한 1차 피해보다도 2차 피해에서 받은 상처가 더욱 고통스러운 경우가 많다.

#### • 주변인에 의한 2차 피해와 예시

- 가해자 옹호와 두둔(“그럴 리가 없어. 훌륭한 선배인데. 술 먹고 한번 실수한 거지.”)
- 사건내용과 당사자 개인신상을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 퍼뜨리거나 SNS에 올리기
- 피해자의 평소 행실 등 험담(“짧은 치마만 입더니, 그럴 줄 알았어. 원래 연애문제가 많았잖아.”)
- 피해자 비난(“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개가 꼬셨대. 그때 왜 도망가지 못했니? 왜 거부하지 못했니? 그 밤에 왜 나갔니?”)
- 사건에 대한 선부른 판단(“별일도 아니네.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일 갖고 뭘 그래.”)
- 피해자에게 사건을 덮으라고 종용[“사건이 드러나면 우리 학교(단과대학, 학과, 학장, 학과장, 교수)가 곤란해지니 일을 키우지 마라”, “학교(단과대학, 학과, 학장, 학과장, 교수)가 다른 일로 힘드니 이 사건은 조용히 넘어가자”]
-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용서하라고 강권(“가해자 인생이 이걸로 완전히 망가지면 어떻게 할 거니. 그러니만큼 네가 이번 한 번만 너그럽게 용서해라.”, “용서하면 복을 받을 거야.”)
- 사건을 개인 간 갈등으로 보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화해시키려 함(지도교수가 양 당사자를 함께 불러서 나란히 앉혀 놓고 화해하라고 함. 지도교수가 실험실에서 양 당사자의 자리를 옆에 붙여 놓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함.)

- **가해자에 의한 2차 피해**

- 사건 후 피해자에게 화를 내거나 야단을 치기
-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점수를 낮게 주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하기
-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를 험담하거나 피해자 탓하기
- 지도교수 등 관리자에게 사건을 피해자보다 먼저 보고하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설명
-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이 원치 않는데 연락하거나 찾아가서 사건 합의를 집요하게 요청

- **2차 피해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

- 피해 가중
- 명예 훼손
- 심리적 상처 가중
- 신뢰 깨짐, 대인관계 두려움
- 일상·학업·업무의 곤란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 피해자를 지지하고 신뢰를 주기
- 사건을 알게 되었을 때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하고 소문 퍼뜨리지 않기. 한 사람에게 이야기해도 소문이 퍼질 수 있음
- 상담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 방지가 중요함을 설명하고 사건을 아는 사람들에게 비밀유지 요청을 하도록 안내하기
- 상담자는 피신고인에게 2차 피해 방지가 중요함을 설명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비밀유지 요청을 하기
-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원인을 돌리지 않고, 피해자에게 자책감 부추기는 말을 자제하기
-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편들지 않기
- 사건 당사자들의 평소 행실, 학업능력, 성격 등으로 편견을 갖지 않기
-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게 이야기하거나 질문해야 할 때에는 반드시, 이야기해도 괜찮은지 미리 동의를 구한 다음에 이야기하기
-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말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설령 걱정이 되더라도 구체적으로 자세히 묻거나 이야기하지 않기

## 5 사건 해결 절차 안내

---

사건 이야기를 듣기 전이나 후,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성폭력 사건 해결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한다. 사건 해결 절차로는 크게 사법적 해결(형사고소, 민사 손해배상청구), 학내 해결(중재, 조사 후 징계 등), 개인적 해결(개인적으로 가해자에게 잘못 인정과 사과를 받기, 공간분리 등 피해자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약속 받기)이 있다. 피해자가 사건상담을 하면서 피해자 자신을 위해 적절한 해결 절차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에게 인권센터를 안내하고 인권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도록 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해자가 직접 인권센터에 연락하여 상담할 수도 있고, 상담자가 인권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의뢰할 수도 있다.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을 물어보고 진행한다.

상담자가 사건 해결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한 후, 피해자가 어떤 해결 절차가 자신을 위해 적절한지 선택하도록 안내한다.

피해자 면담 시, 상담자는 가해자가 사건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지는 것이 적절한지 피해자와 함께 이야기해 보고 책임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본다. 학내 징계나 공식적인 조치를 원할 경우에는 인권센터 조사 절차가 적합함을 설명한다.

사건 해결 과정에서 어떤 점이 걱정되거나 두려운지 파악하고 사건 해결 절차에서 공동체나 상담자가 함께 하겠다는 의지와 신뢰를 주고, 피해자가 힘을 갖고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처해 가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좋다.

피해자가 가해자(교수, 상사 등)의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신고하기 어려워하거나 사건 해결 방법을 찾기 어렵다면 상담자(공동체)가 인권센터 전문가와의 논의를 통해 문제해결의 대안들도 모색해 보고 그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해줄 수 있다. 이때도 미리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다.

피해자가 당장 결정하기 어려워하는 경우에 첫 상담에서 결정하지 않아도 되고 피해자가 시간을 두고 결정할 수 있도록 여유를 준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공개사과나 사건의 공론화를 원할 때, 그것을 시행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상담자가 피해자와 함께 예측해 본다. 그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이 사건의 해결 방법으로 적절한지, 그것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다른 피해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여지는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 1) 비밀유지 요청

사건 내용과 당사자 신상정보가 퍼질 경우 2차 피해가 될 수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비밀유지를 요청한 후 이야기하도록 내담자에게 안내한다. 피해자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했다면 그 사람에게 “사건에 관해 내 동의 없이 이야기되는 것을 원치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도록 한다. 피신고인(가해자)에게도 비밀유지 요청을 하겠다고 안내한다.

### 2) 접촉금지 및 공간분리 방법 정리

피해자에게 당장 피신고인(가해자)과 마주치지 않도록 접촉금지와 공간분리 조치가 필요한지 확인한다. 필요하다면, 피신고인(가해자)과 마주치게 되는 상황을 묻고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함께 구체적인 방법을 찾는다.

임시 공간분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중재나 조사 절차가 끝날 때까지이다. 중재 서약 또는 조사 후 결정과 권고에서 공간분리 기간과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수업, 동아리, 과방, 자주 드나드는 건물 등을 파악하고 공간분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학과나 동아리의 공식행사(개강파티, 종강파티, 과 행사, MT 등)에 가해자가 참가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한다. 또한 단톡방 등 SNS 상에서도 분리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방법을 찾는다. 피해자가 원하는 공간분리 방식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적절한지에 대해 상담자가 판단해 보고, 적절하지 않다면 적절한 방식을 제안하고 정리해 준다.

사건 양 당사자가 모두 같은 공동체에 있거나 공동체 내에서 사건으로 인한 갈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집단상담 등 공동체 상황에 맞게 방법을 찾을 수 있겠는데 인권센터와 의논하여 방법을 찾을 수 있다.

홈페이지 <a href="http://hrc.snu.ac.kr">http://hrc.snu.ac.kr</a>	
상담	<p><b>* 성희롱·성폭력 상담</b>  전화상담: 02-880-2424~5  면접상담: 우정원(153동) 305, 313호  이메일상담: <a href="mailto:helpyou@snu.ac.kr">helpyou@snu.ac.kr</a></p> <p><b>* 인권침해 및 고충민원 상담</b>  전화상담: 02-880-2422~3  면접상담: 우정원(153동) 303, 315호  이메일상담: <a href="mailto:helpme@snu.ac.kr">helpme@snu.ac.kr</a></p>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p><b>* 교육 이수 방법</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a href="https://helplms.snu.ac.kr">https://helplms.snu.ac.kr</a> 접속, 혹은 서울대학교 포털에서 '인권/성평등교육' 배너 클릭</li> <li>② SNU ID와 PW 입력</li> <li>③ 왼쪽 메뉴에서 '수강신청' 클릭 후 원하는 강좌 수강신청</li> <li>④ 왼쪽 메뉴에서 '나의 강의실' 클릭 후 학습하기</li> <li>⑤ 강의를 중간에 중단하였을 경우 이어보기 가능</li> <li>⑥ 교육 이수 후 나의 강의실에서 수료증 출력 가능 (수료증은 이수일로부터 1년간 유효)</li> </ol> <p><b>* 온라인교육 문의:</b>  02-880-2428, <a href="mailto:prevent@snu.ac.kr">prevent@snu.ac.kr</a></p>